

보살의 37 수행법

특메 상뵤 지음

나모 로께 사라야

제법의 가고 옴이 없음을 보셨으나
오로지 중생을 위해 애쓰시는
최고의 스승과 보호자 관세음보살께
항상 삼문으로 공경하며 정례합니다.

안락과 이로움의 근원인 정등각들께서도
바른 법을 수행하여 부처가 되셨고
이분들의 수행법을 알아야 보살행을 할 수 있기에
보살들의 수행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1.
구하기 어려운 가만의 큰 배를 얻은 이 때
나와 타인이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밤낮으로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듣고 사유하며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2.
친한 이에게는 탐욕이 물처럼 출렁이고
싫어하는 이에게는 성냄이 불처럼 치솟으니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린 무지의 어두운 자여,
고향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3.
악한 장소를 멀리한 것에서
번뇌는 서서히 감소하고 번잡한 마음 들지 않아
선행은 절로 늘어나며 생각은 맑아 법에 확신 생겨나니
외딴 곳에 머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4.
긴 시간 사랑하고 함께한 사람과 이별하고
고생해서 축적한 재산마저 뒤로 하며
의식이라는 손님은 떠나면서 육신의 처소를 버리니
이 생을 위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5.
벗으로 삼으면 삼독이 늘어나고
문사수의 실천은 감퇴하며
사랑과 연민심을 부숴버리는
악한 친구를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6.

바른 스승께 의지하면 허물은 제거되고
달이 차오르듯 공덕이 늘어나니
참된 스승을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7.

윤회 감옥에 갇혀있는 세간의 신들 중
나를 구원해 줄 이 누가 있는가?
만일 누군가에게 귀의해야 한다면
거짓됨 없는 삼보께 귀의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8.

너무나 견디기 힘든 악도의 괴로움들은
악한 업의 결과임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설령 나의 목숨이 달려있을지라도
악한 업은 결코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9.

삼계의 안락함은 풀잎 끝의 이슬과 같아
순간 생겼다가도 사라지고 마는 존재로
최고의 경지인 불변의 해탈을
구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10.

무사이래로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이 고통 받는다면
나의 행복이 무슨 소용인가?
그러므로 무량한 중생이 헤어나도록
보리심을 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11.

모든 괴로움은 나의 안락함을 원하는 것에서 생겨나고
원만한 부처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마음에서 태어나셨으니
내 안락함과 남의 고통을
진심으로 바꾸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12.

설령 누군가 큰 욕망에 빠져 내 재산을
전부 강탈하고 약탈하도록 시킬지라도
육신과 재물과 삼의 선업들을
그를 위해 회향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13.

내게 조금의 허물도 없는데도
누군가 내 머리를 벨지언정
자비심으로 그의 모든 악업을
내가 감내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14.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여
삼천 세계에 나에 대한 나쁜 소문 내어도
역시나 자애심으로
그의 덕을 말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15.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내 흠을 들추고 능욕할지라도
그를 스승이라고 생각하여
예를 갖추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16.

내 아들처럼 귀히 여기던 사람이
나를 원수와 같이 볼지라도
병에 걸린 아들과 같이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17.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한 이들이
자만심으로 인해 나를 멸시한다 해도
공경심으로 스승과 같이
내 머리 위에 모시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18.

궁핍한 생활과 사람들의 끊임없는 천대
지독한 지병과 귀신에게 시달릴지라도
또다시 모든 중생의 고통 내가 대신하고자
좌절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19.

명성을 얻고 명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 숙이며
다문천왕과 같은 재산 축척했다라도
윤회의 부귀영화 덧없음을 보아
교만함이 사라지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20.

나의 마음 속 성냄의 적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비갈의 원수가 없어도 고통은 늘어나기만 하니
자애와 자비의 군대로
내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21.

괘락은 소금물과 같아
취하면 취할수록 갈증과 갈망이 늘어만 가니
집착이 생기는 대상들을
매 순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22.
마음은 본래 희론의 경계를 여의었으니,
내 마음에서 비롯된 다양한 형상일 뿐임을
알아서 객관의 대상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23.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여름철의 무지개와 같이 고와 보이나
보아도 실제라고 여기지 말며
집착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24.
갖은 괴로움들은 착란인데도 꿈속의 죽은 아들과 같이
보이는 것을 진실로 여겨 계속 지지기만 하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환영으로 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25.
깨달음을 위해 육신마저도 버려야 한다면
바깥 물질들은 말할 필요가 없으니
보답과 과보를 기대하지 않는
보시를 베푸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26.
계율을 지니지 않으니 자신의 뜻도 이루지 못하며
타인의 뜻을 이뤄주고자 한다지만 가소로우니
윤회에 대한 열망이 없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27.
선한 부를 원하는 보살에게
모든 해악은 귀한 보물과 같아
모든 이에게 적의가 없는
인욕을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28.
나만의 목적을 위해 정진하는 성문과 독각 마저도
머리에 불이 난 것처럼 정진하는 것을 보았다면
모든 중생을 위하는 이는 모든 공덕의 근원이 되는
정진에 더더욱 매진해야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29.
사미타를 갖춘 위빠사나가
번뇌를 없애는 것을 알아
사무색정을 초월한
선정을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30.

지혜가 없는 다섯 가지 바라밀으로는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하니
방편을 갖춘 삼륜정정의
무분별지를 닦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31.

나의 허물을 내가 살피지 않는다면
수행자의 외형으로 법이 아닌 것을 행할 수 있으므로
매 순간 나의 허물을 알아차려
끊도록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32.

나의 번뇌로 인해 다른 보살들의 허물을 지적한다면
나만 타락할 뿐으로
대승에 들어간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33.

재물과 명예를 위해 서로 다투면
문사수의 실천이 쇠하게 되니
사랑하는 사람과 시주자들의 가정에 대한
연연함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34.

거친 말을 하면 다른 이의 마음이 불편해지며
보살의 실천이 기울게 되니
다른 이가 불쾌해 질 수 있는
거친 말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35.

번뇌는 습관이 들면 없애기 어려워지니
정념과 알아차림의 칼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매 순간 잘라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36.

요약하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동을 하건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살피고
매 순간 정념과 알아차림을 챙겨
이타를 위한 정진을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37.

이와 같이 정진하여 지은 선업들
무량한 중생의 괴로움 없애기 위해
삼륜정정의 지혜로 깨달음을 위해
회향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현교와 밀교의 경전과 논서들에서 설하신 성인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삼아 보살행을 닦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보살의 37 수행법>을 엮었습니다. 저는 배움이 적고 지혜가 얕으며, 현자들께서 감탄할 만한 문장력 역시 갖추지 못하였지만 성인들의 말씀을 토대로 한 이 보살의 수행법에는 오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살의 행은 매우 광대하여 저와 같이 부족한 이가 전부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니 혹여 모순되고 무관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허물들을 성인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길 청합니다.

이 수행서를 지어서 얻은 선업들로 모든 중생이 진제와 속제 보리심을 얻어 윤회와 해탈의 경계에 안주하지 않는 보호주 관세음보살과 같아지기를 회향합니다. 수행자 비구 특메상뽕가 나와 남을 유익하게 하고자 티베트 울추의 동굴에서 지었다. 선하도다.